

# ‘미운 우리 새끼’ 시청률 20% 돌파 ‘69억 빚쟁이’ 이상민 출연 화제



진솔한 모습에 시청자 애잔·공감  
일요일로 시간대 변경 효과 한몫

“이게 경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경쟁이 펼쳐져요. (웃음) 출연진끼리 은근히 경쟁을 해요. 서로 더 가깝게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죠. 그게 바로 저희 프로그램 인기 비결인 것 같아요.”

예능 프로그램으로서는 ‘미운 우리 새끼’의 시청률 20%를 달성한 SBS TV ‘미운 우리 새끼’의 광승영 PD는 14일 이렇게 말하며 웃었다.

금요일 밤 11시에 방송되던 지난달부터 일요일 밤 9시 15분으로 자리를 옮긴 ‘미운 우리 새끼’는 자리를 옮기자마자 시청률이 상승세를 타더니 급기야 지난 7일 방송에서 시청률 20%를 돌파했다.

◇ “이상민이야말로 ‘미운 우리 새끼’ = 요즘 ‘미우새’의 화제는 단연 이상민이 끌고 가고 있다. 69억 원의 빚을 지고도 씩씩하게 살아가며 허세마저 부리는 이상민의 사연은 매회 ‘충격’마저 전해주고 있다.

광 PD는 “파일럿을 준비할 때부터 이상민 씨를 접촉했다. 이상민 씨야말로 ‘미운 우리 새끼’ 아니겠나”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파일럿을 선보이고 정규편성된 후 해를 넘기도록 이상민의 섭외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상민 씨가 아직은 사생활을 노출할 때가 아니라며 고사하더라고요. 만약 출연하게 되면 자신의 생활을 다 보여주고 싶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였죠.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니 기다렸죠. 그런데 MC 서장훈 씨가 그 사이 꾸준하게 이상민 씨를 설득한 거였어요. ‘아는 형님’에 두 분이 함께 출연하니 이상민 씨를 만날 때마다 서장훈 씨가 ‘미우새’ 출연을 권유한 거였어요. 서장훈 씨가 그렇게 자신의 프

로그래에 대한 애착도 크고 아이디어도 많아요. 결국 서장훈 씨의 꾸준한 설득에 이상민 씨가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빚에 짓눌려 있으면서도 성실하게 갚아나가려고 하고, 그 와중에 ‘폼생폼사’의 자세를 잃지 않는 이상민의 일상은 그 자체가 각본 없는 드라마. 시청률 20%를 넘어선 날은 이상민이 자신의 채권자 중 한명과 식사를 하는 내용이 방송됐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리기 힘든 장면이다.

“이상민 씨가 빚이 많다 보니 녹화를 하다 보면 채권자들에게 문자나 전화가 수시로 와요. (웃음)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게 채권자들과 형, 동생하며 지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카메라에 다 담기는데, 찍고 나서 상민씨가 채권자에게 방송에 나가도 되냐고 양해를 구하면 다들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날 상민씨가 채권자를 만나러 가는데 찍혔냐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깜짝 놀라 찍어도 되냐고 반문했죠. 그 채권자 분도 상민씨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면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상민이라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또 한번 바뀌었어요. 이런 사람이니까 지금껏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구나 감탄했습니다.”

◇ “일요일 밤으로 옮기며 2049 시청자 늘어” = ‘미우새’는 금요일 밤에도 10~13%의 시청률을 보였고 15%를 찍기도 했다. 그게 최대치로 보였다. 일요일 밤으로 옮기자마자 18%대로 올라서더니 20%를 넘어섰다.

“그런데 옮기자마자 2049 시청자가 늘어났어요. 그 나잇대 분들이 금요일 밤에는 집에 잘 없잖아요.

그런데 일요일 밤에 하나기 본방송을 보신거죠. 거기에 마침 그분들이 알고, 관심 있어하는 이상민 씨가 새로 투입돼 시너지 효과를 낸 것 같아요. 기존 ‘미우새’의 콘텐츠 파워에 더해지니까 시청률이 더 오르게죠.”

광 PD는 “분당 시청률에서는 사실 다른 출연진의 에피소드와 이상민 씨 에피소드가 큰 차이가 없다. 고루 관심을 받는다”고 말했다.

“김건모 씨의 경우는 언행일치의 대가입니다. 임으로 받은 말은 꼭 실행으로 옮기죠. 다른 사람이 하면 이상하게 보일 일들이, 김건모 씨가 하면 이상하게 안 보이고 재미있게 보이죠. 그게 김건모라는 사람의 매력인 것 같아요. 박수홍 씨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늘 에너지가 불타죠. 흥에 넘치죠. 토니안 씨는 친구 좋아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 좋아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고요.”

“미우새’의 안정적인 인기에는 어머니들의 존재감이 큰 몫을 차지한다.

“다른 프로그램과 ‘미우새’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어머니들이죠. 이 분들이 스튜디오에서 얼마나 잘 버텨줄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너무 잘해주고 계속요. 2주에 한번 어머니들과 녹화를 하는데 아들들 촬영분을 보러 오는 재미에 오세요. 사소식 먹은 아들들이 누가 어머니에게 자신의 일상을 얘기하나요. 어머니들은 실제로 저희가 찍어온 것을 보고 아들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게 되세요. 처음에 어머니들 출연을 설득하는 게 어려웠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다 똑같더라고요. 자식 이야기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시는 거죠. 그 모습에 시청자들이 공감하시는 거고요.”



유시민·김영하·황교익·정재승 등 지식인 총출동

## tvN ‘알아두면 쓸데없는 잡학사전’

### 내달 2일 첫 방영

나영석 PD의 신작에 소설가 김영하,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도 출연한다.

tvN은 나영석 PD의 새로운 예능 ‘알아두면 쓸데없는 잡학사전’을 6월2일 밤 9시50분에 첫방송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유혜열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출연이 공개된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에는 이들 외에 김영하, 황교익, 뇌를 연구하는 물리학자 정재승(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도 합류한다.

tvN은 “각 분야 최고의 지식인 그룹인 이른바 ‘인문학 어벤져스’가 총출동해 끊임 없는 지식 대방출의 향연을 펼치며 ‘잡학 박사’들의 면모를 과시한다”고 소개했다.

프로그램은 유혜열이 MC를 맡아 4명의 출연진과 함께 국내를 여행하며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펼치는 구성으로 진행된다.

제작진은 “세상 온갖 화두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은 사석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는 궁금증에서 출발하게 된 프로그램”이라며 “지식에 대한 희열을 맛볼 수 있도록 잡학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 어낼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 영화 ‘보안관’ 200만 관객 돌파

이상민·조진웅 주연의 코믹영화 ‘보안관(사진)’이 개봉 11일째인 13일 오후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지난 3일 개봉한 ‘보안관’(김형주 감독)은 부산 기장을 무대로 동네 보안관을 자처하는 전직 형사가 서울에서 내려온 성공한 사업가를 홀로 마약사범으로 의심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연합뉴스



### TV 프로그램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홍성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가정의달 기획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5.18특집 다큐멘터리 <인권>	25 닥터 365 30 SBS아침연속극 <아침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스승의 날 시상식	40 지구촌 뉴스	50 월화 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스승의날 특선 KBS스페셜 (재) 55 김성훈 고맙습니다 (재)	00 일일드라마 <이름 없는 여자> (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리치 맞았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55 재보자들 (재)	00 MBC 정오 뉴스 2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kbc특집토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다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05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인 55 명인 (재)	00 살림하는 남자들 (재)	10 키즈 사이언스6 55 파워배틀 외치카(재)	55 닥터 365
2	45 콘서트 필 (재)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재)	25 똑?똑! 키즈스쿨 55 텔레노스텔(재)	00 뉴스브리핑
3	35 공감다큐. 사람 55 감성애니 하루 2 (재)	00 자동공부책상 위기 2 30 TV유치원	00 내친구 마카다 25 일일 특별기획 드라마 <황금주머니> (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00 MBC 뉴스M	00 토크콘서트 화통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 특공대 (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오 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남	05 날씨와 생활 10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았어라 30 생방송 TV블로그 골치리락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이름 없는 여자>	15 일일연속극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5 닥터 365 20 SBS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빛나라 온수	30 글로벌24 55 재보자들	55 일일 특별기획 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가정의달 특별기획 이미지 빅소	00 월화 드라마 <백희가 돌아왔다 특별판>	00 월화 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00 월화드라마 <깃속말>
11	00 KBS 뉴스 40 해외결정드라마 <리셀 웨폰>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2017 가정의 달 특집 휴먼다큐 사랑	10 초인가족 2017
12	30 101세의 프로젝트 (재)	35 비바 K리그	20 MBC 뉴스 24 4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55 스포츠특선 MLB 핫토크	20 나이트라인 50 전국 TOP 10 가요쇼

EBS1			
05:00 양초보 영어	09: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4:30 정글에서 살아남	19:30 EBS 뉴스
05:3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아시아동돌기행 - 캄보디아 코끼리>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00 오솔 상사	19:55 다문화 고부 열전
06:00 한국기행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5:05 내 친구 아서	20:50 세계테마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10:30 한국기행(재)	15:20 우주탐험가 잭	<남미연가 일타블라스 고원기행 - 그들 사는 세상 티타카카호수>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 마루의 어드벤처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미녀 주꾸미볶음, 깍두기 볶음>	15:35 모피와 친구들	21:30 한국기행
07:30 로보카 폴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45 코코몽 3	<무릉도원 일성기 - 저 푸른 초원 위에>
07:45 총동! 슈퍼원스 - 한국에 신다	12:00 EBS 정오 뉴스	16:15 방귀대장 뽕뽕(재)	21:50 EBS 다큐 프리덤
08:00 덩둥덩 유치원 1~2	12:40 세상을 모든 범칙(재)	16:30 두다다콩(재)	<제1부 제국의 황제 - 진시황>
08:30 꼬마버스 타요	12:45 과학 다크 비온드 (재)	17:15 엄마 캐투리	22:45 엄마를 찾자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3:40 엄마를 찾자(재)	17:45 호기심나라 오기도	23:35 까칠남자
09:00 방귀대장 뽕뽕이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24:25 세상의 모든 범죄
		19: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24:30 세계의 드라마 <에이 워드 2부>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5일 (음 4월 20일 壬寅)

<p><b>子</b></p> <p>48년생 성숙한 관계로 이끄는 것이 이익이다. 60년생 편견 없이 판국을 살핀다면 반드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72년생 보는 이가 없는 곳에서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84년생 망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발생함을 알라. 행운의 숫자 : 41, 83</p>	<p><b>午</b></p> <p>42년생 충분히 숙고하라. 54년생 실수로 인한 누락이 있을 수 있다. 66년생 유지하는 것이 전부 아니고 진보해야 한다. 78년생 마음을 편하게 가져도 되겠다. 90년생 같은 매달림만 내부에는 문제의 씨앗이 움트고 있다. 행운의 숫자 : 03, 61</p>
<p><b>丑</b></p> <p>49년생 모순이나 미비점이 보이거든 무시하지 말라. 61년생 앞뒤를 잘 가리어서 뛰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73년생 일직자로 진행했다가 늦게나마 풀리는 양태이다. 85년생 뜻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는 하나 이득은 미지수다. 행운의 숫자 : 12, 97</p>	<p><b>未</b></p> <p>43년생 길운이 들어오고 있다. 55년생 애초부터 대중소이하였던 바이니 굳이 구분할 것까지는 없다. 67년생 흥겨우려다가 더 망칠 수도 있다. 79년생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야 할 때가 되었다. 91년생 진퇴가 분명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8, 53</p>
<p><b>寅</b></p> <p>50년생 이론보다는 경험을 우선해야 할 때이다. 62년생 중요한 일을 다루게 될 것이 심사숙고해야 한다. 74년생 단독의 입장은 영향력이 약하니 함께하도록 하자. 86년생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58, 25</p>	<p><b>申</b></p> <p>44년생 추호라도 탄마음을 먹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56년생 기다린 소식을 접하게 될 수다. 68년생 왜드나만 했을 때 정신한 대안을 찾게 된다. 80년생 공들인 노력에 정비례해서 얻은 결과가 나타나라라. 행운의 숫자 : 85, 72</p>
<p><b>卯</b></p> <p>51년생 덤벼보자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니 참으로 무미미한 판국임을 알라. 63년생 내버려 두면 큰일이 될 것이다. 75년생 길정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87년생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골칫거리로 남는다. 행운의 숫자 : 89, 67</p>	<p><b>酉</b></p> <p>45년생 머지않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니 차분하게 기다려라. 57년생 뜻대로 갖고 마음을 굳게 먹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69년생 장기적으로 대처해야 할 단계이다. 81년생 다 듣고 나면 전모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9, 22</p>
<p><b>辰</b></p> <p>52년생 대처 방안이 요청된다. 64년생 무리가 따르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낫다. 76년생 맹목적인 대응은 손실이 따르니 요령이 있어야겠다. 88년생 답답하겠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6, 42</p>	<p><b>戌</b></p> <p>46년생 경험의 참작과 전문성이 옳은 판단으로 이끈다. 58년생 표면일 뿐이므로 동요될 필요는 없다. 70년생 상대를 파악하고 임한다면 절반은 이론 셈이다. 82년생 복잡하게 얽혀 있던 것의 가닥이 잡히는 시기이다. 행운의 숫자 : 51, 04</p>
<p><b>巳</b></p> <p>53년생 순리대로 풀어나간다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다. 65년생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리라. 77년생 좀 더 나은 조건으로 변경될 것이다. 89년생 아침의 근심이 저녁이 되면서 진정 국면을 맞는다. 행운의 숫자 : 75, 02</p>	<p><b>亥</b></p> <p>47년생 필연적인 수밖에 없는 한테이니 각오하고 임해야 할 것이다. 59년생 완벽하게 대비했을 때는 피해갈 수도 있다. 71년생 강력한 유혹의 손길에 번지리라. 83년생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알라. 행운의 숫자 : 53, 11</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